

[유튜브 롱폼 콘텐츠 기획안]
- 고전 스토커 Classic Stalker -

■ 담당 기획 : 김하은, 구태완

■ 컨셉 기획

(1) 콘셉트 : 스비(SBI) 예비 마케터들이 고전문학 속 '사랑과 일상'을 주제로 밸런스 게임을 펼치는 롱폼 토크 예능. 출연진 간의 치열한 설득과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단 하나의 결론을 도출한다.

(2) 기획 의도

이 콘텐츠는 시청자에게 고전문학은 재밌는 것,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동시에 출판 마케터 지망생의 콘텐츠 기획 및 실행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다. 고전문학을 어려워 하는 잠재 독자군에게 허들을 낮추면서, <B주류초대석 (허간민)>, <YUZU 유즈>, <찰스엔터>, <도시여자들> 등 기존의 토크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유튜브 시청자군을 표적 및 유입을 유도한다. 즉, 고전은 재밌다! 그 안에는 우리가 겪는 사랑과 일상의 고민이 담겨 있고, 당신도 충분히 이 고전 문학을 즐길 수가 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3) 주요 레퍼런스 : 유튜브 채널 『십이총(@12총)』, 『영업중』 프로그램

해당 콘텐츠는 일상(특히 연애, 인간관계 등)의 주제를 활용한 밸런스 게임을 주제로 출연진이 각자의 의견을 (상대방을) 설득(영업)하고 토론하는 토크 예능 프로그램이다. “쌈 헛갈리게 한 사람이 잘못이다vs 아니다”, ‘플러팅, 나한테만 유독 웃어주는 사람 vs 은근한 스킨십’ 등 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특히 연애와 인간관계에 관련된 주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본 콘텐츠는 이러한 <영업중> 콘텐츠를 벤치마킹해 고전문학과 연결 짓고자 한다.

(4) 타겟군

(대상) 고전문학 입문 희망자 혹은 로맨스 장르나 사랑에 관심 있는 2030 콘텐츠 소비군
(확산) 기존의 유튜브 토크 기반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자 (유입)

(5) 고려할 점

- ① 대상 시청자군의 고전에 대한 진입장벽, 허들을 낮추기 위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명한 고전을 선정한다.
- ② MC는 토론 전, 소개할 고전문학 작품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토론 주제를 안내한다.
- ③ MC는 출연진이 과열된 토론 분위기를 쿨링 다운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 ④ 토론 주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극단적으로 편이 갈리는 일상의 주제로 정한다.
- ⑤ MC와 출연진 모두가 몰입해 높은 텐션을 가지고 토론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촬영 기획

(1) 촬영 장소 : 마포청년나루 미디어실(보락) (대관 예정) / 한국인출판인회의 건물 401호

(2) 촬영 장비

① 개인 마이크 (4대 확보)

- 2대 : 연서, 민지 찬조 (감사합니다)
- 2대 : 대여 예정

MIC	빌리지 (홍대입구역)	https://www.village6k.co.kr/product/8
MIC	키렌탈 (홍대입구역)	https://bully.kr/G3FoJcv
오즈모 카메라	퍼니렌	https://bully.kr/G3FoJcv

② 스마트폰 + 거치대 (개인 카메라 / 2개 ~ 4개 필요) + 테이프

③ 대본 스크립트 (MC)

④ 오즈모 (메인 카메라 / 1~2개)

⑤ 고프로 (클로즈업 카메라 / 1개)

(3) 콘텐츠 형식

① 영상 길이 (예상) : 15~20분 내외 예상 (주제 2~3개)

② 출연진 : (Host) 하은 / (Guest) 성재, 원지, 연서

③ 토크매너 : 희극인의 면모, 티키타카 중심, 과몰입과 리액션 환영

(4) 진행 구성 (큐시트 러프)

① 인트로 - 출연진 매력 드러내는 도입부 (별도 촬영 예정) + 고전에 대한 인식

② 오프닝 - 컨셉 소개 및 오늘의 게임 룰 소개

③ 본편 - 밸런스 게임 2~3 주제 진행 및 각 문항당 토론 후 거수해서 투표 진행

④ 클로징 - 간단한 소감 및 고전에 대한 인식 변화 보여 줌

■ 콘텐츠 기획

테스트 주제 : 프로스페르 메리에 [카르멘], 누가 더 최악인가?

“전도유망한 군인 돈 호세는 치명적인 매력의 집시 여인 카르멘에게 빠져 군대도 탈영하고 밀수업자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카르멘은 ‘나는 자유롭게 살다 죽을 거야!’라며 그를 매몰차게 버리고 인기스타 투우사에게 눈을 돌립니다. 모든 것을 잃고 질투에 눈이 먼 돈 호세는 결국 카르멘을 찾아가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a. 카르멘 : 엄청난 매력으로 나를 홀려놓고, 사귀는 중에도 끊임없이 다른 이성들과 썸을 타는 애인. 화를 내면 “사랑은 자유로운 거야! 구속하려고 하면 난 떠날 거야!”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고, 훌쩍 잠수 탔다가 본인이 심심해지면 다시 돌아와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마성의 애인.

b. 돈 호세 :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직장, 친구, 취미생활을 다 버리고 오직 ‘나’ 하나에게만 올인하는 애인. 하지만 내 폰의 모든 연락처와 메시지를 검사하고, 내가 길을 걷다 다른 여성과 눈만 마주쳐도 분노 조절 장애를 보이며 24시간 내 위치를 추적하려 드는 집착 광공 애인.

주제 1 : 에밀리 브론테 [폭풍의 언덕], 누가 더 최악인가?

“영국 요크셔의 시골 워더링 하이츠에 살고 있는 연쇼 가문이 있습니다. 그 집의 큰 어른인 연쇼 씨가 어느 날 오갈 곳 없는 집시 고아 히스클리프를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무뚝뚝하고 거친 야생의 소년 히스클리프와 그 집의 딸 캐서린은 첫눈에 반해서 세상에 돌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문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캐서린은 옆집의 다른 부잣집 자제 에드거 린튼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캐서린의 결혼 소식에 히스클리프는 종적을 감춰 버립니다. 그러다 3년 뒤에 다시 캐서린 앞에 나타난 히스클리프의 복수의 칼춤이 시작되는 내용이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의 줄거리입니다.”

a. 캐서린 : 나와 결혼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전 애인(히스클리프)을 잊지 못하는 내 애인. “나는 그 사람과 전생의 인연이 있어” 혹은 “나는 그 사람과 영혼이 이어져 있어”라며 어떻게든 주변에 두고 친구로라도 지내려 하는 내 애인.

b. 히스클리프 : 캐서린의 곁을 항상 맴돌면서, 틈만 나면 내(린튼) 약점 혹은 캐서린의 단점을 드러내고 유언비어까지 퍼뜨리며 호시탐탐 나와 내 애인의 사이를 방해하려는 애인의 전 애인(혹은 남사친).

주제 2 : 찰스 디킨스 [두 도시의 이야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주인공 시드니 칼튼은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우울한 영국 변호사인데, 마음속 깊이 짝사랑하는 '루시'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시 곁에는 칼튼과 정반대로 다정하고 긍정적인 '찰스 다네이'라는 프랑스 청년이 있죠. 칼튼은 그녀를 쟁취하는 대신, '당신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도 바치겠다'는 고백만 남긴 채 루시와 다네이의 결혼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대혁명의 광기 속에서 다네이가 억울하게 단두대 처형을 선고받습니다. 남편을 잃고 오열하는 루시를 보며 칼튼은 과거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마침 다네이와 쌍둥이처럼 얼굴이 똑같았던 칼튼은 그를 대신해 감옥에 들어가 자신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칼튼은 평생 방치했던 자신의 텅 빈 삶을, 오직 사랑하는 여인의 행복을 위해 완성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과연 이토록 지독한 사랑 앞에서, 나라면 그녀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 주는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끝까지 인물의 감정에 이입해서 읽게 되는 작품이 바로 [두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 a.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다.
- b.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주제 3 : F.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둘 중에 더 최악은?

"주인공 제이 개츠비는 뉴욕 외곽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매일 밤 화려한 파티를 여는 백만장자이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이토록 막대한 부를 축적한 단 하나의 이유는 과거에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 '데이지'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데이지는 이미 막대한 재력을 가졌지만 오만하고 위선적인 '툼 뷰 캐넌'과 결혼해 상류층의 안락함 속에 살고 있죠. 개츠비는 오직 그녀의 집 선착장에서 반짝이는 초록색 불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허상의 성을 쌓아 올립니다. 마침내 개츠비는 데이지와 재회하며 다시금 위태로운 사랑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톰의 내연녀가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데이지였음에도 개츠비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쓰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데이지는 그런 개츠비의 맹목적인 헌신을 차갑게 외면한 채 남편과 함께 도망치듯 떠나 버리고, 결국 개츠비는 오해와 배신 속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개츠비는 데이지라는 아름답지만 텅 빈 환상을 좇아 자신의 진짜 삶과 목숨까지 기꺼이 내던진 것입니다. 과연 이토록 맹목적이고 허망한 사랑 앞에서, 나라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환상을 되찾기 위해 나의 모든 현실을 불태우는 어리석지만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인물의 지독한 순정에 끝까지 이입해서 읽게 되는 작품이 바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상황 :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관계를 회복한 내 애인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됐다.

- a. 데이지 : 나와 잠시 멀어진 사이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돈 많은 사람과 환승 연애 혹은 결혼을 시도했던 과거가 있는 애인. (환승 시도)
- b. 개츠비 : 오직 나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 신분을 세탁하고 범죄 조직을 통해 더러운 돈을 모아 부를 쌓은 인물.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나를 스토킹했던 애인. (범죄 사실)
→ 스토킹은 범죄다 vs 하지만 개츠비는 순애였다!

주제 4 : 레프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무엇을 택할 것인가?

“주인공 안나 카레니나는 러시아 사교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경받는 귀족 부인으로, 이성적이고 무뚝뚝한 고위 관료 카레닌과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젊은 장교 ‘브론스키 백작’을 만나면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안나는 그와의 견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져들며, 사회적 지위와 명예,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마저 뒤로한 채 파멸을 향한 위험한 관계를 선택하고 맙니다.

마침내 안나는 브론스키와 함께하며 뜨거운 사랑을 얻지만, 위선적인 사교계는 그녀를 철저히 냉대하고 고립시킵니다. 사회적 단절과 아들을 향한 죄책감, 그리고 브론스키의 사랑이 식을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불안과 질투는 안나의 영혼을 점차 갉아먹습니다. 결국 자신을 짓누르는 숨 막히는 현실과 파국으로 치달는 감정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스스로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안나는 모든 것을 걸었던 맹목적인 사랑의 대가로 자신의 삶을 철저히 파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토록 강렬하고도 파괴적인 사랑 앞에서, 나라면 나의 모든 안정된 삶과 가족을 버리고 기꺼이 저 위험한 열정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치명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인물의 파도치는 감정과 비극적 운명에 끝까지 이입해서 읽게 되는 작품이 바로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 a.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사랑을 택한다.
- b. 사랑보다 안정적인 삶을 택한다.